

구약성서의 창조 관련 본문 연구: ‘혼돈’(混沌, chaos) 극복적 창조*

김윤정(송실대)

1. 서론

구약성서는 다채롭게 하나님의 창조를 기술하지만, ‘無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를 명시하는 본문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無로부터의 창조’를 보여주는 본문은 외경(마카베오 하 7:28)이나 신약성서(롬 4:17; 히 11:12, 19)에서 몇 구절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이 교리는 그리스도교의 대표적 창조 교리로 2천여 년간 자리매김 하고 있다. ‘無로부터의 창조’ 교리의 핵심은 하나님이 다른 신의 도움이나 어떠한 질료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fiat)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유일성과 전능성을 잘 부각한다. 그러나 이 창조 교리는 초대교회가 직면한 여러 이단 사상이나 고대

* 이 글은 송실대학교에서 2022년 취득한 김윤정의 박사학위 논문, “창조에 대한 구약성서의 증언들 연구: 세계 창조와 인간 창조의 동연성 중심으로”의 2장, 3장, 4장에서 주장한 창조 본문들 가운데 일부 본문의 주석에 기대고 있음을 알려둔다.

근동의 창조 신화의 공격에서 하나님을 차별화하고자 주후 2세기 중반부터 여러 교부의 손을 거쳐 탄생한 것이다.¹ 따라서 ‘無로부터의 창조’ 교리는 초기 기독교회에 꼭 필요한 교리였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구약성서 본문들이 이 교리를 지지한다고 보기에는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구약성서에 수록된 수십여 개의 창조 본문을 조사하였고, 하나님의 창조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창조 유형은 3인칭 대상에게 지시된(Jussive) 명령 창조(창 1장: 시 33:5-9; 시 148:1-6; 사 40:26)이고, 두 번째 유형은 하나님이 “너”라고 호칭하는 2인칭 대상, 곧 바다와 그의 동등물(홍수, 물 등)들을 향한 직접 명령 창조(Imperatives, 읍 38:4-11; 시 104:5-9)이며, 세 번째 유형은, 바다를 근거지로 활약하는 바다괴물들(תַּיִמָּוֹת, לַוְיָתָן)의 창조전투(Chaoskampf)를 통한 창조(시 74:12-17; 시 89:8-14; 사 51:9-16)이다.²

본론에서는 이 세 가지 창조 유형의 대표적 본문인 창세기 1장과 읍기 38:4-11, 시편 74:12-17의 상세한 주석을 통해, 구약성서 창조 본문들의 목적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계나 세계를 이룰 물질 창

1 시리아의 타티안(Tatian the Syrian, 120-180)은 “무로부터의 창조”의 초석을 놓은 교부로 창조의 질료인 선재물질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물질을 영원한 것으로 간주한 플라톤 철학과 차별화했다. Gerhard May, *Creatio ex Nihilo: The Doctrine of ‘Creation out of Nothing’ in Early Christian Thought*, trans. A. S. Worrall (New York: T&T Clark, 2004), 149-150. 타티안의 주장을 한 단계 발전시킨 안디옥의 테오필루스(Theophilus of Antioch, 115-168)는 하나님은 무시원성과 불변성을 가진 반면에 물질은 한시적이고 가변적이므로 물질이 하나님보다 선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하나님과 물질의 현격한 질적 차이 때문에 불변의 하나님은 가변적인 물질로 세상을 창조할 수 없다. 따라서 테오필루스는 하나님의 창조가 “무로부터의 창조”일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린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서울: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2008), 296조; 테오필루스, 『아우톨라쿠스에게』, 2.4.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무로부터의 창조”를 주장한 초기 교부들 역시 6일 창조 전의 선재물질(창 1:2)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2 창세기 2장이 기술하는 하나님의 수공업적 창조는 신인동형적 표현이므로 본 연구의 주제와 연관이 거의 없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 않는다.

조에 있지 않고, 6일 창조보다 선재하는 ‘혼돈’(chaos)을 나누고 분리함으로써 피조세계가 들어설 “마른 땅”(הָאָרֶץ הַיְבֵשֶׁת)을 출현시키는 데 있음을 주장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혼돈’ 극복적 창조의 세 가지 유형

1) 3인칭 명령을 통한 창조: 창세기 1장

구약성서의 첫 장인 창세기 1장은 구약성서 가운데 가장 자세하고도 체계적인 창조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 보고로 시작한다. 창세기 1장은 고대 근동의 다신체제의 공동 창조를³ 배제하고, 이스라엘 고유의 유일신 신앙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구약성서 대부분의 창조 본문들이 ‘혼돈 극복적 창조’를 보여줌을 주장하기 전에, 이 글에서 규정하는 ‘혼돈’이 무엇인지 간략한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구약성서에 ‘혼돈’이란 단어는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구약성서의 여러 본문을 종합하면 ‘혼돈’의 의미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는 있다.

3 로버트 쿠틀(Rober B. Coote)와 데이비드 오르드(David R. Ord)는 메소포타미아 창조 내러티브의 핵심이 바벨론의 최고신인 마르둑(Marduk)의 지위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신들이 거주할 신전과 신을 섬길 제의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에누마 엘리쉬」에 따르면 최고신 마르둑은 티아맛(Tiamat)의 몸을 갈라 하늘과 땅을 만들고, 흙을 창조하여 갈대 틀에 부어 물이 넘치지 못하게 한다. 또한 루갈두쿠가(Lugaldukuga)는 에사길라(Esagila)의 기초를 세우고, 아루루(Aruru)는 마르둑과 함께 인간의 씨앗과 각종 초식동물과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를 창조한다. 에아(Ea)는 벽돌의 신 쿨라(Kulla)를 창조하여 신전을 짓게 하며, 곡물과 가축과 포도주와 과일인 신뿐 아니라, 마르둑을 섬기기 위한 요리사와 술 따르는 이를 창조한다. 이처럼 「에누마 엘리쉬」는 여러 신에 의해 세상이 창조되었고, 신들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보고한다. Robert B. Coote and D. R. Ord, *In the Beginning*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1991), 7-8.

이 글에서는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혼돈’⁴을 세 가지로 규정한다. 첫 번째 ‘혼돈’은 곧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1장 2절의 세 상황절의 수식을 받는 정관사 붙은 “하아레츠”(אֶרֶץ) 곧 ‘거대한 물에 침수된 땅’과 그 상태를 의미한다. 창세기 1장 2절의 “하아레츠”는 심연(אֵי תַּיִם), 물, 어둠(חָשֶׁךְ), 그리고 신적 바람(רוּחַ אֱלֹהִים)이 뒤엉켜 어떠한 피조물도 살 수 없는 상태, 6일 창조보다 선재하는 상태를 나타낸다. 두 번째 ‘혼돈’은 거대한 범람성과 액체성을 가진 원시바다(큰물, 홍수 등)나 하나님이 전투를 통해 파쇄한 바다괴물로 등장한다. 그리고 구약성서에서 나타난 세 번째 ‘혼돈’은 역사 안에 등장한 혼돈으로, 흔히 약소국을 유린하는 제국이나 약자를 억압하는 유력자로 나타난다. 이러한 ‘혼돈’은 출애굽기 15장 “바다의 노래”나 시편 74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본문에서 ‘혼돈’은 이스라엘의 길을 막은 거대한 “홍해”나 하나님이 파쇄한 “바다괴물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을 뒤쫓는 애굽이나 이스라엘을 침략한 바벨론 제국을 뜻하기도 한다. 이처럼 구약성서에서 ‘혼돈’은 다양한 면면(面)으로 등장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 곧 정의와 공평에 반(反)하는 신화적, 역사적 세력 모두를 포함한다.

창세기 1:1-2은 첫 번째 유형의 ‘혼돈’을 묘사한 본문으로, 여기에서는 1절을 시간 종속절로, 2절을 주절로 해석한다. 1절의 첫 단어인 “베레시트”(בְּרֵאשִׁית)를 “태초에”라는 부사구로 보지 않고, 2절 상황을 받는 시간절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구문론적으로 1절의 “베레시트” 이하 소절은 룻기 1:1의 첫 어구(שָׁמַיִם וְאֶרֶץ)와

4 고대 근동의 우주기원론에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 무질서한 상태를 ‘혼돈’(chaos)으로 간주하며, 이 ‘혼돈’은 원시적 물, 또는 바다괴물로 등장하여 피조세계의 생존에 적대적 존재로 묘사된다. 이런 이유에서 존 월튼(John Walton)은 ‘혼돈’을 무질서와 반(反)기능, 또는 비생산성으로 규정하며, 창조는 우주에 질서와 조화를 부여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John Walton, *Genesis 1 as Ancient Cosmology*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11), 27.

יְהִי בַּיּוֹם הַהוּא [In the days of the Judge's judging])처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바라” 동사는 부정사 연계형 “베로”(bérō)로 읽어야 하며, “베레 시트”는 룯기의 “뵤메”(בְּיָמַי)에서 전치사 “베”(בְּ)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내용적으로 볼 때 창세기 1:1 첫 소절을 절대형 선언문장으로 간주하면 2절의 세 상황절과 연결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이다. 1절을 “하늘들과 땅”의 창조가 완료된 상황을 선언하는 구문으로 읽는다면, “하늘들과 땅”의 단계적, 점진적 창조과정을 말하는 2절의 세 상황절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다.⁵

2절의 첫 단어인 “베하아레츠”(בְּהָאָרֶץ)의 “베”(בְּ)는 1절을 이어받는 상황절 도입 접속사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해석하면 “그때의 그 땅은”이 된다. 따라서 2절의 세 상황절은 정관사 붙은 “하아레츠”(הָאָרֶץ)를 묘사한다고 할 수 있다.⁶ 즉 “하아레츠”는 “토후 바보후”(Whbow Whto)

5 윤행은 창 1:1의 “바라”(בָּרָא) 동사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귀속되지만, 그 안에 수작업의 의미도 숨겨져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창조 작업을 위한 재료로 1절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이며, 동시에 1절에서 창조된 “하늘과 땅”은 계속 진행될 창조 작업을 위한 공간이다. 윤행,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대한 재고찰- 창세기 1장 1절-2장 4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19/4 (2013), 120-122.

6 에프라임 스페이저(E. A. Speiser)는 2절의 “하아레츠”(בְּהָאָרֶץ)를 “세상”으로, “테흠”을 바다로 간주하며 창 1:1-2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창조를 시작하시던 때, 그때의 세상은 형태도 없고 황폐했으며, 바다(תְּהוֹם) 위에는 어둠이 있었고, 오직 강력한 바람(רוּחַ אֱלֹהִים)만이 물 위에 불고 있었다.” E. A. Speiser, *Genesi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2008), 3. 스페이저는 창 1:1의 “하늘과 땅”이 2절에 등장하는 “토후 바보후, 어둠, 테흠”의 질료라고 주장한다. 위의 책, 13.

한편 테렌스 프렛하임(Terence Fretheim)은 창 1:2 상태를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기 이전,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상태로 간주한다. 그는 2절 상태를 ‘혼돈’이라 규정하며, 고대 근동 창조 설화와 달리 이 ‘혼돈’은 창조주의 적대세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를 위해 사용할실 원재료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즉 프렛하임은 스페이저가 1절의 “하늘과 땅”을 2절 ‘혼돈’의 질료로 본 것과 달리, 2절 상태를 세상의 질료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Terence Fretheim, “The Book of Genesis”, in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1 (Nashville: Abingdon, 1994), 356.

또한 존 D. 레벤슨(Jon D. Levenson)은 창세기 1장이 구약성서가 보여주는 창조기를 대표하지도, “無로부터의 창조”를 보여주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질료로부터의 창조를 지지한다. 그에 따르면 창세기 1장에도 고대 근동의 우주기원론이 곳곳에 스며 있는데, 그 실례(實例)로 창세기 1장에 물의 창조가 보고되지 않으며, 6일 창조 사역의

라는 서술보어로 규정되는 “그 땅”이며, ‘어둠에 눌린 테흠’에 잠긴 “그 땅”이자, ‘신적 바람이 부는 물’에 침수된 “그 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 땅”, 곧 “하아레츠”를 묘사하는 2절은 창조와는 현저한 대조를 이루는 부정적인 어떤 것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2절의 정관사가 붙은 “하아레츠”는 10절에서 “마른 땅”(בְּשֵׁף)을 지칭하는 정관사가 붙지 않은 “에레츠”(אֶרֶץ)와 다르다. 2절의 “하아레츠”는 어둠과 심연, 신적 바람과 뒤엉켜 있는 땅을 가리키고, 10절의 “에레츠”는 물과 분리되어 피조물이 생존 가능한 “마른 땅”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세기 1:2의 “토 후 바보후”는 피조물이 살기 부적절하다는 의미에서 ‘無’ 또는 ‘비존재’로 볼 수 있으며, 생명 활동에 적대적인 선제 환경으로 이해될 수 있다.⁷

2절 두 번째 상황절의 ‘어둠에 눌러있는 테흠’(וְחֹשֶׁךְ עַל־פְּנֵי תְהוֹמִים)은 첫 번째 상황절과 마찬가지로 어둠에 눌러 구약성서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혼돈’, 곧 범람 가능성이 있는 ‘거대한 물’이 아니라, ‘어둠과 심연에 침수된 땅’을 가리킨다.

2절 세 번째 상황절의 “루아흐 엘로힘”(רוּחַ אֱלֹהִים)은 물 위를 부는 강력한 바람으로 해석할 수 있다.⁸ 발터 아이히로트(Walther Eichrodt)

무대가 되는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는 2절의 선제 상황에서 분리된 것이 확실하므로, 2절 상황은 향후 만들어질 세계의 질료가 된다고 주장한다. Jon D. Levenson, *Creation and the Persistence of Evil: The Jewish Drama of Divine Omnipotenc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5.

7 칼 바르트는 2절 상황을 “nicht”(無)로 지칭하면서 이를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저항하고 반대하는 요소로 규정한다. 그에 따르면 “nicht”는 실제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어둡게 하고 황폐케 하는 존재다. 바르트는 “nicht” 곧 ‘혼돈’은 하나님이 원하지도 창조하지도 않은 존재지만, 하나님의 창조와 그의 피조물의 경계를 형성하는 현실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nicht”에 대한 승리는 창조 안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며, 하나님은 無를 거부하실 뿐, 전적으로 멸절하지는 않으신다. 그 이유는 인간이 당신의 편에서 창조행위에 참여케 하기 위함이다. 칼 바르트, 『교회 교의학 III/3』 (윤웅진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6), 486-496. 원제는 Karl Barth, *Church Dogmatics*, Vol. 3.3, Sections 48-49: The Doctrine of Creation, Study Edition 17, G. W. Bromiley/T. F. Torrance (ed.), (New York, NY: T&T Clark, 2010).

8 헬렌 쉥겔-스트라우만(Helen Schüngel-Straumann)은 창 1:2에 등장하는 “루아흐 엘로

는 이 바람을 아무 목적 없이 돌진하는 강력한 바람으로 보는 데 반해⁹, 게르하르트 폰라트(Gerhard von Rad)는 이 거대한 바람이 ‘혼돈’을 말린다고 주장한다.¹⁰ 클라우스 베스터만(Claus Westermann) 역시 “루아흐 엘로힘”을 “하나님의 바람”(God’s wind)이라 사역(私譯)한다.¹¹ 본 논문에서

힘”을 ‘하나님의 영/창조의 힘’이라고 주장하며 창 1:2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 a)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b)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c)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녀는 a)와 b)를 “혼돈”에 대한 묘사로 보는 한편, c)는 1절과 이어지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 “루아흐”가 바람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문법적으로 항상 남성형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여성분사인 “רוּחַ”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녀는 신 32:11에서 “머라헤페트”가 날개를 퍼덕거리는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루아흐”를 바람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으로 세계를 창조하는 원동력으로 볼 수 있다. Helen Schüngel-Straumann, “Geist (AT)”, Helen Schüngel-Straumann, “Ruah (Geist-, Lebenskraft) im Alten Testament”, Maria Kassel(ed.), *Feministische Theologie: Perspektiven zur Orientierung* (Stuttgart: Kreuz Verlag, 1988), 63. 그러나 구약성서에는 “루아흐”가 명백하게 바람을 의미할 때도 여성형으로 쓰인 경우(겔 1:4; 시 1:4)가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그녀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에드워드 영(Edward J. Young) 역시 “루아흐 엘로힘”을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하여 2절의 땅이 비록 거주 불가능한 땅이라 하더라도 이 땅 역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루아흐 엘로힘”을 세 가지 이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한다. 그는 첫 번째 이유로 이 단어가 “거대한 폭풍”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성서에서 널리 쓰이는 רוּחַ גּוֹלָה를 사용했을 것이고, 두 번째 이유로 “루아흐”를 묘사하는 분사(머라헤페트)는 불어오는 바람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지 않으며, 셋째, 2절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상황절이 모두 거주할 수 없는 땅을 묘사하는데 “루아흐 엘로힘”을 “신적 폭풍”으로 해석하면 거주 가능한 땅이 되므로 2절 전체 맥락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Edward J. Young, *Studies in Genesis One* (Philadelphia, PA: Presbyterian and Reformed, 1964), 35-37.

차준희 역시 창 1:2의 “루아흐 엘로힘”을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할 때, 이어나오는 단어인 “운행하다”(רוּחַ)와 잘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머라헤페트”의 어근인 “라하프”(רָחַף)는 생명의 보호와 보존에 사용되므로, 이 단어는 생명 친화적인 “하나님의 영”의 활동을 잘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의 창조는 어둠과 무형체와 혼돈으로부터 우주를 형성한 것(creatio ex chaos)이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창조에 큰 역할을 한다. 차준희, “구약에 나타난 창조의 영”, 『구약논단』 21/1 (2015), 192-192.

- 9 Walther Eichrodt, *The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vol.2, trans. John Baker (Lond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67), 107.
- 10 Gerhard von Rad, *Genesis: A Commentary*, trans. John H. Marks (Philadelphia, PA: The Westminster Press, 1972), 50.
- 11 Claus Westermann, *Genesis 1-11: A Commentary* (Minneapolis, MN: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4), 76.

는 폰라트의 주장을 따라 “루아흐 엘로힘”을 ‘선재하는 혼돈’(창 1:2 상태)을 말하는 ‘신적 바람’으로 간주한다.¹² 하나님의 거대한 바람은 물(테흠, 함마임)을 말려 마른 땅이 드러나게 만든다. 따라서 2절 상황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물과 물이 분리되어야 할 상태, 창조로 변화되어야 할 무질서한 상황이자, 하나님이 추후에 창조하실 바탕(질료)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처럼 창세기 1:2이 6일 창조 이전의 선재 상황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2절에 등장하는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이 확실해 보인다. 왜냐하면 구약성서는 시종일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자 창조주임을 반복하여 말하기 때문이다.¹³ 따라서 2절의 “테흠”과 “호쉐크”, “하아레츠”, “함마임”은 하나님이 6일 창조 이전 단계에서 선행적 창조로 생성된 피조물로 볼 수 있으며, 이 선재적 존재로부터 6일 창조가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¹⁴

12 창세기 8:1 역시 하나님이 물로 가득 찬 땅에 바람을 보내서 물을 말리는 장면을 보여준다. 또한 출애굽기 14:21에서도 하나님이 동풍을 보내어 바닷물을 물러가게 만들어 바다와 마른 땅을 분리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처럼 구약성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하나님의 바람” 또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람”이 물(바다)을 말리는 장면을 묘사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루아흐 엘로힘”을 ‘신적 바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13 *Genesis Rabbah*에 따르면 창 1:2에 등장하는 “토후”, “보후”, “호쉐크”, “테흠”, “루아흐 엘로힘”, “함마임”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랍비 라반 가말리엘(Raban Gamaliel)과의 대화에서 한 철학자는 창 1:2에 나오는 이 여섯 가지 요소를 하나님과 기원이 같은 물질로 간주하며, 따라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창조주가 아닌 조물주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라반 가말리엘은 이 여섯 가지 물질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주장한다. “토후”와 “보후”와 “호쉐크”는 사 45:7에, “테흠”은 잠 8:24에 “루아흐 엘로힘”은 암 4:13에, “함마임”은 시 148:5에서 하나님의 창조물로 기술된다는 것이다. 라반 가말리엘은 “토후”와 “보후”를 악으로 간주하며, “루아흐 엘로힘”을 거대한 바람으로 간주한다. Jacob Neusner, *Genesis Rabbah: The Judaic Commentary to the Book of Genesis, A New American Translation* 3 vols: Brown Judaic Studies 104-106; (Atlanta, GA: Scholars Press, 1985), 1: 3-4.

14 김진희는 자신의 논문 “자연/창조에 있어서의 혼돈과 질서: 신학, 과학, 철학을 통한 창조 이해”에서 “테흠”이 창조를 발아시키는 데 필수불가결한 촉매제라고 주장한다. 그런 데도 전통적인 “無로부터의”(ex nihilo)의 창조 교리가 ‘혼돈’의 존재를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그는 ‘혼돈’을 無가 아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잠재적 공간(영역), 또는 무형의 선(先)공간(pre-spatial)으로 간주하면서 ‘혼돈’을 이후 창조를 이룰 근원적

6일 창조는 빛의 창조로 시작된다(창 1:3). 빛의 창조는 3인칭 명령 창조로서, 2절 상태, 곧 “테흠”, “호쉐크”, “하아레츠”를 향해서 던져진 명령이다. 따라서 첫째 날 빛의 창조(3절)는 선재하던 어둠(2절의 호쉐크)에서 빛이 분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¹⁵, 둘째 날 공창(אֲרָצָה)의 창조는 2절의 “테흠”과 “합마임”을 가둘 공간을 분리한 것이고¹⁶, 셋째 날 땅의 창조는 물을 한곳으로 모아 땅과 바다의 경계를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땅과 바다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혼돈’ 상황에서 물과 물이 분리되어 “땅”과 “바다”라는 이름을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창조된 것이다.¹⁷

자연으로 이해한다. 김진희, “자연/창조에 있어서의 혼돈과 질서: 신학, 과학, 철학을 통한 창조의 이해”, 『신학사상』 120 (2003), 208-229.

15 버나드 앤더슨은 빛의 창조(창 1:3)가 광명체의 창조(1:14-19)보다 앞선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달과 해와 별 등의 천체는 빛의 원천이 아니라 시간의 원천이며, 천체의 창조는 점성가들이 별들의 움직임에 기초하여 신(神)이 선택한 신적 인간(divine man)의 미래 운명을 알고자 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제사장 계급의 창조 기사는 이러한 광명체들이 시간과 계절을 정할 뿐, 시간의 창조자이자 역사의 창조자인 하나님의 종으로 규정한다. Bernhard W. Anderson, *Creation versus Chaos: the Reinterpretation of Mythical Symbolism in the Bible* (Eugene, OR: Wipf and Stock, 2005), 112.

16 월튼에 따르면 창 1:6에 등장하는 “라키아”(אֲרָצָה, 공창)는 하늘과 땅 사이의 광활한 공간으로 그 위와 아래에 우주적 물을 가둘 수 있을 만큼 견고하다. 또한 “라키아”는 단순한 사물, 물질이 아니라, 인간이 살 만한 공간, 또는 비와 바람을 통제하는 장치로 간주된다. 이처럼 “라키아”는 끊임없이 위협하는 우주적 물을 가둬 우주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다. Walton, *Genesis 1 as Ancient Cosmology*, 160.

아이히로트 역시 고대인들의 사고에서 하늘은 땅보다 훨씬 안정성이 있는 큰 구조물로 창세기 1장에서도 공창은 “혼돈의 물”로부터 최초로 출현했다고 주장한다. 공창은 “건고하게 짙어낸 것”을 의미하며,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누는 경계다. 아이히로트는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합쳐지면 그 결과는 ‘혼돈’으로의 복귀라고 말한다. Eichrodt, *The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vol. II, 93-94. 이러한 주장들은 본 논문의 입장과 상당히 일치한다. 본 논문에서도 마른 땅과 바다와 더불어 공창도 창 1:2의 ‘혼돈’ 상황에서 분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17 이집트 문헌에서도 창조신은 모든 것의 이름을 선포한 자로 규정한다. 생물이거나 사물의 이름은 실제적 호칭이라기보다는 규정된 어떤 것의 본질을 뜻하며, 실제로 이름을 부르는 일은 언급된 대상의 창조를 뜻한다. J. M Plumley, “The Cosmology of Ancient Egypt”, in *Ancient Cosmologies* (ed. C. Blacker and M. Loewe; London: Allen and Unwin, 1975), 38.

분리된 마른 땅과 궁창, 바다는 이후 창조될 온갖 피조물의 서식처가 되며, 피조물의 창조 역시 이미 존재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땅과 바다는 하나님의 3인칭 창조 명령의 수행자로서 매개 창조를 수행하기 때문이다(창 1:11, 20, 21, 25). 따라서 창세기 1장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창조는 상대적으로 선재하는 상황을 분리하고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피조물이 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한 후, 그 공간을 피조물로 가득 채운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창세기 1장 3, 6, 9, 14절은 물과 물, 어둠, 그리고 하나님의 영(바람)이 혼종(混種)되어 있는 선재적 상황에서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을 영접할 거주공간을 구획하여 만들어가는 조형(造形) 창조를 다룬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의지와 지성을 응축하여 발하신 명령은 이미 존재하는 선재 세력들의 뒤엉킴을 돌파하고 극복하는 명령이다. 명령으로 현실을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권능은 제왕의 직위에서 기인하므로, 창세기 1:3 이하의 명령 창조는 유일한 단독 주권을 가진 약위의 통치 행위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 있다.

브루스 월키(Bruce K. Waltke)가 잘 지적하듯이, 창세기 1:3 이하의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적 상태에 개입하여 어둠 가운데에서 빛을, 바다 한가운데에서 땅을, 물 한가운데에서 궁창을 분리하고, 기존에 없었던 것을 존재케 만드는 과정이다.¹⁸ 이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이 살 수 없는 ‘어둠에 눌러있는 심연’과 ‘토후 봐보후 상태의 땅’을 피조물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이다. 이처럼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존재를 시작했으므로 우리는 그분의 명령과 독립된 창조 세계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하나님의 명령은 창조 세계를 창

18 브루스 월키, 캐시 J. 프레드릭스 외, 『창세기 주석』(김경열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101. 원저는 Bruce K. Waltke, *Genesis: A Commentary* (Grand Rapids, TN: Zondervan, 2001).

조하고 붙드는 생명력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3절의 첫 명령어 “여히 오르”(וַיֹּאמֶר יְהוָה)는 1:2의 선재 상황에게 직접 전달된 명령어가 아니라, ‘존재할지어다’를 의미하는 3인칭 명령형(jussives)이다. 빛의 창조는 빛에게 직접 하달된 명령(Imperatives)이 아니라, 창세기 1:2 상태, 곧 어둠과 물, 물과 하나님의 바람이 뒤엉켜 있는 선재 상황을 향해 발화된 명령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창세기 1장을 ‘혼돈 극복적 창조’ 본문으로 읽을 수 있다. 결국 하나님의 첫 창조인 빛의 창조는 선재하는 어둠에서 분리된 것으로, 빛의 창조로 ‘혼돈’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

폰라트는 빛이 ‘혼돈’을 비춤으로써 일련의 창조 활동이 시작되는 것은 빛이 가장 숭고한 존재이자 최고의 존재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3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빛을 내는 천체가 아니라, 빛 그 자체라고 주장한다.¹⁹ 발광체와 별의 창조는 넷째 날에 이뤄지기 때문이다(14절).

하나님의 빛 창조는 궁창 창조로 이어진다. 6절 상반절의 두 번째 명령어는 궁창 창조를 성취한다. 하나님은 행위가 아닌 명령으로 “어둠”에서 “빛”을 불러내시고(3절), “궁창”을 만들어 그 위와 아래에 액체성을 띤 거대한 물을 가두고(6절), 땅 아래 물을 한곳에 모아 “마른 땅”을 드러내신다(9절). 즉 9절의 “마른 땅” 창조는 2절의 ‘혼돈의 물’을 궁창에 가두고, 한곳에 모음으로써 가능해진 것이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육상거주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태흠”을 한곳으로 모으시는 분할 사역으로 보금자리를 확보한다. 즉 하나님은 피조물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물과 물을 나누고 분리하신 것이다. 이처럼 피조물을 보양하고 번성케 하는 창조는 ‘혼돈’의 경계 설정에서 출발한다. 창세기 1:2

19 von Rad, *Genesis*, 51.

의 “테흠”(심연)과 “함마임”(큰물)은 그 자체로 생명 친화적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키는 “어둠”과 “심연”조차 하나님에게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어둠”에서 빛을 분리하고, “심연”(深淵, abysmal waters)으로부터 땅을 건져내므로, “어둠”과 “심연”이 없다면 빛과 땅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²⁰

14절은 지상 거주 피조물들의 생명 창조와 탄생을 위한 결정적인 조건인 궁창에 거주하는 “광명체들”(מְאָרֹת, 므오로트)의 창조를 다룬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밝힐 각종 광명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낮과 밤, 계절과 시기를 정함으로써 창조질서를 설정한다. 14절은 두 광명체와 별들이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보여준다. 14절에서 해와 달을 뜻하는 “שֶׁמֶשׁ”나 “יָרֵחַ”를 사용하지 않고 “מְאָרֹת”(므오로트)를 사용한 이유는 제사장 신학의 영향일 수 있다. “므오로트”는 보통 성막이나 성전에 두는 “등불”을 가리키는데, 제사장 신학은 지구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성소(사 66:1-2; 참조. 사 6:5; 합 2:14)로 간주하므로, 이 단어를 성소를 매 순간 비추는 등불(출 35:14, 28; 39:37; 레 24:2)로 생각하고 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홀로 시간과 공간, 빛과 각종 천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만물과 만상을 만드신다. 하나님은 땅에게 명령하여 풀과 각종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채소를 내게 하고(창 1:11), 물에게 명령하여 각종 생물을 번성케 하며, 궁창에 새가 날게 하신다(창 1:20). 이처럼 하나님은 땅과 물을 매개로 하여 많은 생명체들을 창조하시지만, 이를 보완하여 하나님이 직접 큰 바다짐승들과 새들, 그리고 땅의 짐승을 만들기도 하신다(창 1:21, 25).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으며, 피조물들 역시 서로에게 연관되어 있다.

20 브루스 월키 외, 『창세기 주석』, 100.

우리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 창조는 일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명령으로 피조물을 만들어 낸 것처럼 보이지만, 명령 행위는 그 명령을 듣는 대상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명령을 듣는 대상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아직 편입되지 않았거나 창조 명령을 통해 극복되어야 할 선재적 존재로 볼 수 있다.

둘째, 하나님의 명령은 무질서도가 극대치인 ‘혼돈’ 상태에 발설되어 피조물의 서식처가 될 땅과 궁창과 바다를 분리하므로, 하나님의 창조는 생존 불가능한 환경에 질서를 부여하여 생명 친화적 공간으로 변화시킨 구원행위라 할 수 있다.

2) 2인칭 명령을 통한 창조: 욥기 38:4-11

구약성서에는 앞서 살펴본 창세기 본문과 같이 하나님이 3인칭 명령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는 본문(시 33:5-9; 시 148:1-6; 사 40:26 등) 이외에도, 하나님이 직접 원시바다나 홍수에게 직접 명령함으로써 마른 땅을 드러내는 것으로 창조를 묘사한 본문이 다수 등장한다(욥 38:4-11; 시 104:5-9 등). 욥기에 태초의 창조 장면이 있다는 사실이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욥기 38-41장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의 신비에 관해 욥에게 던진 수많은 질문을 담고 있다.

특히 욥기 38:8-11은 물과 물을 나누는 태초의 창조 장면으로 볼 수 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창조 질서에 대적하는 대상은 3인칭 “테홈”이나 “어둠”이 아니라 갓 태어난 강보에 싸인 ‘신생아 바다’다. 그러나 일견 무력해 보이는 이 ‘신생아 바다’ 역시 여전히 땅을 덮을 만큼 높은 파도를 가지고 있으며(11절), 하나님의 법(ִּקּוּן)으로 경계를 세워야 할 만큼 땅에 위협적 존재다(10절). 즉 갓 태어난 바다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www.kci.go.kr

욥기 38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1-3절은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묘사하고, 4-7절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따라 조성된 땅과 그 땅을 보고 기뻐하는 천상적 존재(하나님의 아들들)를, 8-11절은 ‘신생아 바다’에 한계를 설정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 12절 이하는 하나님이 욥에게 퍼부은 질문들로서 창조와 피조세계의 신비를 내용으로 한다.

4-6절에서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놓는 장면은 태초의 창조 장면을 연상시킨다. 여기서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거대한 혼돈 물결을 땅의 깊은 곳에 감금하고, 유쾌하신 행위로 요약된다. 4절에서 하나님이 놓으신 땅의 기초는 물과 물이 뒤엉킨 혼돈 상태에서 피조물이 살 수 있는 마른 땅을 건져내신 것이므로, 8-11절에서 바다를 향해 문을 닫아 두는 넘어오지 못할 경계를 세우신 것과 같기 때문이다.

7절에는 새벽 별과 “하나님의 아들들”(בְּנֵי אֱלֹהִים)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하는 것을 볼 때, 이들은 하나님 창조의 목격자이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대리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태초에 세우신 땅의 기초와 바다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신적 품성을 분여(分與)받은 자(창 1:26)들로 볼 수 있다. 시편 29편 1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이를 “권능있는 자들”로 번역한다. 개역개정은 다신교적 신화적 색채를 중화하기 위해 이러한 번역을 시도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 이러한 번역은 불충분한 번역이다.²¹

8절 상반절에서 우리는 바다의 기원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다. 그

21 한스-요하임 크라우스(Hans-Joachim Kraus)가 잘 지적한 것처럼, 이 단어는 보통 최고 신에게 복종과 경배를 바치는 하급 신(시 82:1; 89:6; 97:7)이나 천상에서 지상의 영들을 보살피는 신적 권능자들을 의미한다. 히브리 성서에서는 이러한 신적 존재를 “하늘의 만군”(בְּנֵי אֱלֹהִים, 왕상 22:19), “스랍천사”(사 6:2), “하나님의 아들”(בְּנֵי אֱלֹהִים, 욥 1:6; 2:1; 38:7)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한다. Hans-Joachim Kraus, *Psalms 1-59: A Commentary*, trans. Hilton C. Oswald (Minneapolis, MN: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8), 347-348.

러나 욱기 본문은 명시적인 답을 내놓지 않는다. 우리는 갓 태어난 신생아 같은 바다가 어디에서 기원하는지, 또 언제 하나님께서 바다를 탄생시켰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로 간주한다. 또한 하나님이 갓 태어난 바다에게 구름으로 옷을 입히고 어둠으로 강보에 싸는 행위는 이 ‘신생아 바다’의 범람을 막기 위해 경계를 세운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갓 태어난 바다에게도 ‘혼돈’의 성향이 남아있으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신생아 바다’ 자체가 창조 이전의 ‘혼돈’ 상태로 되돌리려는 세력의 메타포라는 것이다.

9절은 바다가 갓난아기 이미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둠으로 감금하고, 문빛장으로 가두며, 그리고 명령과 법도를 반포하여 통제해야 할 완강한 세력으로서의 ‘바다’의 면모를 보여준다. 또한 우리가 ‘바다’를 이렇게 해석할 때 비로소 이 구절은 자신의 고난 원인을 묻는 욱에게 하나님이 보내는 대답이 된다. 욱이 겪는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바다를 억제한 행위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인과관계의 법칙 안에서 완전무결하게 닫힌 체계가 아니라, ‘바다’의 우발적 범람에 열려있는 세계라는 것이다.²² 그래서 신생아 같은 바다에게도 많은 통제가 가해진다.²³

하나님이 “구름”으로 바다의 옷을 짓고²⁴, “어둠”으로 신생아 같은

22 김희권, 『청년설교 4』 (서울: 복있는사람, 2019), 106-108.

23 데이비드 클라인즈(David J. A. Clines) 역시 “바다”가 태어날 때 문을 닫아 가두고(8절), 통제의 옷이 입혀졌으며, 9절에서 “바다”를 강보에 싸는 행위도 바다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데이비드 클라인즈, 『욱기 하』 (한영성 옮김),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14), 148. 원제는 David J. A. Clines, *Word Biblical Commentary: Job 1-20* (Nashville, TN: Thomas Nelson Inc., 1989).

24 하경택은 욱 26:8-9에서도 구름이 하늘의 무거운 물 덩어리를 감싸며,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구절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위대한 행동으로 세계의 기초를 놓는 장면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다음절인 10절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는 장면은 욱 38:12

바다의 강보를 만드신 행위(9절 하반절)는 창세기 1:2의 두 번째 상황절을 상기시킨다. 이 구절은 “어둠에 잠긴 심연”(עַל־פְּנֵי תְהוֹמוֹת)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이것은 첫 번째 상황절의 침수된 땅과 마찬가지로 “태흙”이 “어둠”에 눌러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 창세기 1:2 상태는 물과 물, 그리고 어둠이 뒤엉킨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즉 ‘어둠에 잠겨있는 태흙’은 “태흙” 고유의 범람성이 어느 정도 제어된 상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통해 빛과 궁창, 그리고 마른 땅이 분리된다. 하나님은 궁창 위와 아래에 “물”을 가두시고(창 1:6절), “물”을 한곳에 모아 바다를 만드신다(창 1:9절). 궁창에 가둔 물과 바다는 원시적 혼돈 상태에서 분리를 거친 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창조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는 높은 파도와 거대한 범람성을 지니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이 글은 하나님을 “구름”으로 바다의 옷을 짓고 “어둠”으로 강보를 만든 행위는 바다를 통제된 것이라고 해석한다.²⁵

데이비드 클라인즈(David J. A. Clines) 역시 읍기에 등장하는 ‘신생아 같은 바다’가 분명 야웨의 적수도, 태초의 창조 전투에서 힘겹게 이긴 대적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적대적 성

과 19절을 상기시킨다고 말한다. 하경택, “읍 발언의 창조모티브 고찰”, 『구약논단』 18 (2005), 119-120.

25 신생아같은 바다에 대한 본 연구의 해석은 다수의 읍기 주석가들에게도 지지를 받는다. 예를 들면 마빈 포프(Marvin H. Pope)는 하나님이 갓 태어난 “바다”를 강보(또는 기저귀, swaddling band)로 싸낸 것은 보호의 차원이 아니라, 폭력적 갓난아기를 제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우가릿 문서에서도 소(牛)의 모습을 한 괴물인 “먹보 괴물들”(Eaters)과 “탐식 괴물들”(Devourers)이 태어났을 때 강보(swaddling-bands)를 사용했다는 언급이 나오고, 메소포타미아 창조 신화에서도 마르둑이 티아맛을 죽이고 그 물이 넘지 못하도록 빗장을 세우는 장면이 등장(ANET, p. 67, lines 139-140)하는 것을 볼 때, 읍기의 이 구절들(9-10절)은 신생아 같은 바다의 통제를 묘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Marvin H. Pope, *Job: Introduction, Translation and Notes*, Anchor Yale Bible 15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8), 293-294.

향과 의도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하나님의 명령으로 제압되어야 할 존재라고 주장한다.²⁶ 이처럼 욥기 38장에서 바다가 갓나아기로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는 시편 104편의 리워야단이 노닐고, 배가 오가는 순치된 바다가 아니라, 여전히 높은 파도를 가진 위험한 바다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욥기 38:8-11의 핵심 주제는 바다의 범람을 막아 안정적으로 땅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며, 여기에서 ‘신생아 바다’는 하나님의 창조 프로그램 안에서 통제를 받는 ‘혼돈 괴물’(chaos monster)의 의인화로 볼 수 있다.²⁷ 왜냐하면 구약성서에서 범람성을 가진 ‘혼돈의 물’(chaotic waters)과 리워야단, 라합, 탄닌 등의 ‘혼돈 괴물’은 모두 땅을 덮어 하나님이 세우신 땅과 물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존재로서, 이 둘의 신학적 정체성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개역개정은 10절 상반절을 “한계를 정하여”로 번역하지만, 맛소라 본문에서는 “한계”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10절을 직역하면 “나(하나님)는 그(바다)를 나의 법규로 산산조각냈다”(וַאֲשֶׁר עָלְיוֹ חֲקֵי)로 번역된다.²⁸ 이와 유사하게 프레드 고틀립(Fred Gottlieb)은 지면을 덮고 있던 원시적 물을 한곳에 모으는 행위(창 1:9)는 오만한 반역 세력을 제압한 것이고, 이 물은 고대 근동 창조 신화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카오스’(혼돈)의 화신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이 경계를

26 클라인즈, 『욥기 하』, 148-149.

27 Herman Gunkel, William Whitney Jr.(trans.), *Creation and Chaos in the Primeval Era and the Eschaton: A Religio-Historical Study of Genesis 1 and Revelation 12* (Grand Rapids, MI, and Cambridge, MA: Eerdmans, 2006), 64-65.

28 노먼 하벨(Norman C. Habel)에 따르면 “법규”를 뜻하는 “호크”(חֲקֵי)는 “우주를 지배하는 영원한 힘”을 의미한다(욥 14:5; 26:10; 28:26). 그는 하나님이 당신의 법규로 리워야단의 본거지인 “바다”의 범람을 막은 행위(10절)와 리워야단에게 굴레를 씌우신 행위(욥 41:1-2; 시 104:26)는 모두 ‘혼돈’을 무력화한 행위로서 이것은 모두 땅의 기초를 세우는 행위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Norman C. Habel, *The Book Job* (Philadelphia, PA: The Westminster Press, 1985), 538-539.

세워 이 물이 넘지 못하게 막은 행위는 ‘혼돈’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시 104:9; 욥 38:11). 이것이 함축하는 바는 혼돈(chaos)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의 지속적인 행위를 멈추면 언제라도 다시금 범람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⁹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다음의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한다. 첫째, 욥기 38:8에 등장하는 ‘신생아 바다’는 갓 태어났을지라도 땅을 덮을 수 있는 범람성을 가지고 있으며, 땅의 기초는 바다를 제압하여 경계를 세울 때 확립된다.

둘째, 하나님이 ‘혼돈’을 유폐하는 수단은 하나님의 “올레”(פח)로서 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질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호크”를 하나님이 바다가 땅을 넘지 못하도록 세운 “경계”로 해석해도 이 구절의 주지(主旨)는 달라지지 않는다. 경계를 세우는 행위 역시 ‘혼돈’을 제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본문 역시 하나님 창조의 핵심은 물질이나 세상의 조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혼돈’을 제압하여 마른 땅을 드러내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 바다괴물들과의 전투(Chaoskampf)를 통한 창조 본문:

시편 74:12-17

구약성서에는 바다를 근거지로 활약하는 리워야단이나 탄닌 등의 바다괴물을 ‘혼돈’으로 묘사하는 본문이 여러 개 등장한다. 이러한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다괴물들과 전투를 벌여 승리하심으로써 창조 세계를 세우신다(시 74:12-17; 89:8-14; 사 51:9-16). 이러한 창조 본문들은 유일신 야웨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에서도 고대 근동의 우주기원론이

29 Fred Gottlieb, “The Creation Theme in Genesis 1, Psalm 104 and Job 38-42,” *Jewish Bible Quarterly* 44/1 (2016), 32.

널리 퍼져 있었음을 보여준다.

바다괴물과의 전투 정황을 묘사하는 대표적 본문인 시편 74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탄식 시편으로 크게 다섯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1. 이스라엘의 탄원과 간구(1-3절), 2. 파괴된 성소(4-9절), 3. 의심받는 하나님의 권능(10-11절), 4. 태초의 창조 권능으로 구원하실 것을 탄원하는 이스라엘(12-17절), 5. 이스라엘의 구원 간구(18-23절).

1-11절은 하나님의 백성과 성소가 이방 민족(주의 원수)에게 유린당하는 상황을 보여주며,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항변을 담고 있다. 만일 하나님이 끝까지 침묵하신다면 하나님은 이방의 신보다 열등하여 당신의 백성과 성전이 유린당한 것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다.

12-17절은 태초적 창조 정황을 묘사한 본문이다. 12절 “말키 므케템”(מַלְכֵי מִקְּתָם)에서 “믹케템”(מִקְּתָם)은 하나님이 왕권을 손에 넣은 태초를 가리키며, 왕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를 가리킨다. 이런 점에서 “믹케템”은 창세기 1장을 소환하는 어구이다. 또한 이 단락의 끝부분인 16-17절은 하나님이 낮과 밤, 해와 달을 창조하고, 땅의 경계를 세우고, 계절을 만드신 것을 묘사한다. 따라서 12-17절 전체를 태초의 창조 정황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주께서 기르시는 양”에게 진노를 거두셔서 (1절) 주의 회중(4절)을 도끼로 삼림 베듯이 하고(5절), 성소를 도끼와 철퇴로 부수며(6절), 성소를 더럽힌(7절) 주의 대적(바벨론)을 태초에 리위야단과 탄닌을 부수신 그 창조 권능으로 심판해 주실 것을 청원한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창조 모티프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유린한 침입자들(4-8절)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하고도 적법한 세상의 왕임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³⁰ 여기에서 우리는 주의 백성을 압제하는 바

30 Beth Tanner, Nancy L. deClaissé-Walford, et al., *The Book of Psalms* (Grand Rapids, MI:

벨론과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위협하는 “테흘”, “원시바다”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개역개정은 11절 하반절에 ‘케티브’(כתִּיב)를 적용하여 “주의 품(תִּיקָב)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로 번역하지만, 본 논문은 ‘케레’(קרי)를 적용하여 “당신의 법규(תְּקִיחַ)의 진수(眞髓)로부터(בְּמִקְרָב) 당신의 오른손이 (행할 일을) 완벽하게 완성하십시오(כִּלְהַ)”로 번역한다. “완성하다”의 뜻을 가진 “칼라”동사는 강의(強意)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는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완성을 뜻한다.

개역개정은 12절 하반절을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로 번역한다. 그러나 원전을 직역하면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구원을 행하시는 분”(פֶּעַל שְׂמוּעוֹת בְּקִרְבֵּי הָאָרֶץ)이다. “행하다”의 뜻을 가진 “파알”(פֶּעַל) 동사는 이 구절에서 남성 단수 능동 분사로 사용되어 여기서는 “행하시는 분”(פֶּעַל)으로 해석된다. 즉 개역개정은 하나님의 구원 대상을 사람으로 한정하지만, 맞소라 본문에서 구원의 대상은 “하아레츠”(הָאָרֶץ)다. 물론 “하아레츠”가 땅의 거주민을 뜻할 때도 있지만, 13절에서 바로 하나님이 바다를 나누시는 것을 볼 때, 이 구절은 ‘혼돈’ 상황에서 땅을 건져 올린 태초의 창조 상황, 곧 물과 물의 분리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따라서 11절에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당신의 법규로 행하시는 일”은 곧 땅의 구원이며, 땅의 구원과 주의 백성을 유린하는(2-10절) ‘혼돈’의 역사적 현현(顯現)인 바벨론을 제압하는 것은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는 것이다.

13절 “바다를 나누시고”에서 “나누다”로 번역된 동사는 “파라르”(פָּרַר)인데 이 동사 또한 강의를 뜻하는 “포라르타”(פּוֹרְרָתָא, 당신이 산산조각 내셨다)로 사용되었으므로 단순히 “나누다”의 의미로 보긴 어렵

다. 오히려 “얌”(אֵם)을 바알 신화에 등장하는 바다괴물인 “얌”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박살내신 13절 하반절의 “탄닌”과 14절 상반절의 리워야단과도 잘 호응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당신은 당신의 권능으로(בְּעֹזֶךָ) 얌(אֵם)을 산산이 부수시고(פָּרַצְתָּ), 물 가운데(עַל-הַמַּיִם) 탄닌들의 머리(רֹאשֵׁי הַתַּנִּינִים)를 박살내셨습니다(שָׁבַרְתָּ).”³¹

이에 비해 14절 하반절에서 바다괴물들을 파쇄하여 사막의 동물들에게 먹이로 내주는 장면은 태초의 창조 장면이라기보다 승리한 우주적 왕의 모습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리워야단을 죽이는 상반절은 창조정황을 나타내므로, 14절은 창조주인 엘(EI)과 우주의 왕으로 등극한 바알(Baal)이 야웨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었음을 보여준다.³²

31 본 논문의 주장과 유사하게 궁켈은 13-15절이 가나안, 메소포타미아 창조 신화와 유사함을 인정하며, 태초의 창조 정황을 묘사한 본문으로 읽는다. 궁켈은 13절에서 하나님이 용(תַּנִּין)의 머리를 박살낸 것은 세계 창조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야웨의 영웅적 행위(시 74:13-15)는 세상 창조(16-17절) 이전에 행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13절 상반절의 바다의 분리는 창세기 1장에서 원시적 물들을 궁창 위와 아래에 가둔 것과 유사하며(창 1:7), 15절에서 늘 흐르던 시내(원시적 물, primordial streams)를 말하는 행위 역시 창조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궁켈은 본 논문과 달리 13절의 “얌”을 바다괴물이 아닌 바다로 해석한다. Gunkel, *Creation and Chaos in the Premeval Era and the Eschaton*, 28. 또한 마빈 테이트(Marvin E. Tate)도 13-15절이 우가릿-가나안 신화와 유사하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를 묘사한 구절이라고 본다. 즉 그는 이 구절이 창세기 1장뿐 아니라 시편 104:1-9; 89:10-15; 65:7-8; 93:24과 일맥상통하며, 야웨의 왕권과 세상 창조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마빈 E. 테이트, 『시편 중』 (손석태 옮김),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0), 423. 원제는 Marvin E. Tate, *Word Biblical Commentary: Psalms 51-100* (Nashville, TN: Zondervan, 2018).

32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Wolfhart Pannenberg)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후대에 이르러 출애굽의 하나님(출 3:6)과 동일시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야웨는 가나안의 “엘”(אֵל)과 이스라엘 전통의 “엘 엘리온”(אֵל אֱלִיּוֹן)의 속성을 모두 획득했고, 이러한 습득으로 “엘”의 변형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판넨베르크는 세계질서와 우주기원의 표상들이 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역사 가운데 발생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특성이 새롭게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성서 기사는 야웨에 대한 배타적 순종을 요구하기 위해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임을 부각할 필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야웨는 “엘”과 동일시되고, 세상을 보전하고 갱신하는 “바알”의 행위(용과 전투를 벌이는 바알) 역시 야웨에게 전이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연과 역사는 모두 야웨의 행동 영역에 포함되고, 세상의 태초 사건뿐 아니라 역사 안에서 발생한 사건들도 창조 개념 안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판넨베르크

개역개정은 15절 상반절을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물을 내시며”로 해석하지만, 맛소라 본문을 직역하면 “당신은 샘(נַעֲמַן)과 시내(נַחַל)를 부셔 물길을 내시고(נִפְתָּח, break open)”이다. 15절에 “바위”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데도 개역개정은 “바카”(בַּקָּ) 동사가 보통 “쪼개다, 나누다”로 해석되는 것에 착안하여 이스라엘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내신 장면을 덧입혀 해석한 것으로 추측된다. “바카” 동사는 막힌 곳을 뚫는 뜻도 있으므로 샘과 시내의 (물) 열려 가뉘듯 물을 터트리므로 해석하면, 15절은 하나님의 물에 대한 지배 또는 통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4-15절을 태초의 창조 정황이 아닌 출애굽 사건으로 읽는 학자도 있다. 예를 들면, 데렉 키드너(D. Kidner)는 13-15절에서 용의 머리를 깨뜨리고, 큰물을 내고, 강을 말린 하나님의 행위는 신화의 영역이 아니라, 역사의 영역에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친히 구원을 베푸신 사건으로 간주한다. 그는 12-15절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13a)에서 요단강(15b)까지 인도해 내고 메마른 광야를 피조물이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킨 것(14b, 15a)으로 보는 것이다.³³

이와 달리 마빈 테이트는 리위야단이나 탄닌을 홍해와 동일시하여 출애굽 정황으로 읽는 것에 반대한다. 여호와가 용을 파쇄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서 입증된 그분의 창조와 구속의 능력을 강조

크는 포로기의 탄원사에서 하나님이 태초의 권능으로 세상을 ‘혼돈’으로부터 건져내시는 분으로 등장하는 것(시 74:12-17; 사 51:9-16)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역사 행위로 치환(사 48:7; cf. 43:19)된 예라고 주장한다.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 『조직신학 II』 (신준호/안희철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42-46. 원제는 Wolthard Panenberg, *Systematic Theology*, Volume 2 (Grand Rapids, TN: Wm. B. Eerdmans Publishing, 2013).

33 D. 키드너, 『시편 주석 하권』 (김경태 옮김), (서울: 다산글방, 2020), 30-31. 원제는 D. Kidner, *Psalms 73-150: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No. 16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y Series) (Downers Grove, IL: IVP, 2014).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³⁴

그러나 본 논문은 시편 74:12-17 단락을 태초의 창조 사건(세계 창조)과 출애굽 사건(이스라엘 창조)이 결합된 형태로 봄으로써 이 단락은 태초의 창조시 하나님에게 유폐된 '혼돈'(바다, 리위야단)과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정의와 공의)를 교란시킨 '혼돈'(애굽, 바벨론과 같은 거대 제국)이 모두 등장한다고 주장한다. 시편 74편 기자는 하나님이 태초에 태곳적 물을 어떻게 제압(12-17절)하셨는지 상기시킴으로써 현재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주의 대적(4절, 23절)을 태곳적 권능으로 무찔러 달라고 탄원하기 때문이다(18절). 따라서 이 구절은 세계 창조와 이스라엘의 창조 모두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³⁵

이처럼 시편 기자는 태초에 물을 덮던 '혼돈'과 이스라엘이 경험한 역사적 '혼돈'을 결합함으로써 '혼돈'의 영역을 확장한다. 이제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이 제압해야 할 '혼돈'은 바다괴물이나 원시바다를 넘어, 하나님의 성소와 시온을 파괴(2-3절)하는 주의 원수이자, 주를 비방하고(18절) 주의 백성을 학대(21절)하는 자들까지 확대된 것이다. 시편

34 마빈 E. 테이트, 『시편 중』, 423.

35 본 논문의 입장과 유사하게 프랑크 호스펠트(Frank-Lothar Hossfeld)도 13절은 태곳적 혼돈의 분리와 바다괴물(리위야단과 라합)과의 전투를 보여주므로 이 절은 태초의 창조 장면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시 77:17-19; 89:10-11; 사 51:9-11). 그러나 동시에 호스펠트는 이 구절을 출애굽 당시 홍해에서 있었던 아웨와 파라오와의 전투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웨는 생명 적대적인 적, 곧 홍해(chaotic waters)뿐 아니라 '역사적 혼돈'인 파라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삶과 구원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스펠트는 이 구절이 묘사하는 사건을 태초의 창조 사건으로 보든,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으로 보든 간에 아웨의 우주적 왕권을 한껏 과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Frank-Lothar Hossfeld, *Psalms 2*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05), 248-249. 이와 유사하게 앨런 로스(Allen P. Ross) 역시 바다를 산산조각 낸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손이고(13절), 바다는 통상적으로 '혼돈'을 가리키므로 이 구절을 창조 본문으로 읽을 수 있고, 15절은 이스라엘이 홍해와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보호를 암시하기 때문에 출애굽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15절 상반절은 하나님이 바위에서 물을 내신 것을(출 17:6; 민 20:8), 15절 하반절은 요단강을 마르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신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Allen P. Ross, *A Commentary on the Psalms* vol. 2 (Grand Rapids, MI: Kregel Publications, 2013), 586-588.

기자는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이 태초에 제압한 ‘혼돈’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처지를 창조 전 상태, 땅을 덮은 ‘태흙’에 자신이 삼켜졌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사 17:12-14; 사 8:8-10).³⁶ 왜냐하면 제국들은 더 이상 경계를 넘지 말라는 명령을 듣고서도 완강하게 저항하는 원시바다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대 이스라엘은 이 압도적으로 강한 제국을 하나님이 창조시 경계를 설정한 ‘혼돈’의 또 다른 현현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태고적 창조 권능으로 이 대적들을 분쇄해달라고 강청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하나님은 원시바다에게 명했던 것처럼 제국들에게도 명한다. “이스라엘을 침수(侵水)시키기까지 범람하지 말라.”³⁷

이상의 논의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이 바다괴물을 무찌르고 세상을 창조하신 태초의 창조 권능은 오늘날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태초에 ‘혼돈’은 멸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혼돈’은 모습을 바꿔 땅(이스라엘, 약자)을 덮치려 한다. 그러나 ‘혼돈’이 해악만 끼치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앗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역사적 ‘혼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분의 창조 주권을 다시금 상기하도록 도우며, 하나님의 언약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역사적 존재근거를 한층 더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둘째, 성서 기자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창조 언어로 묘사하는 것(사 41:9; 43:19; 48:6; 49:19-21)은 하나님의 창조는 종말까지 계속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의 단회적 창조가 아니라 계속적 창조로 볼 수 있으며, 계속적 창조는 ‘혼돈’의 범람이 역사 안에서 되풀이될 수 있음을 상정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혼돈’의 끊임없는

36 김회권, 『성서주석 이사야 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216-221, 386-390.

37 위의 책, 271-272.

범람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와 장소에서 피조물의 변영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창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3.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세상을 이루는 조물 창조나 공작적 창조에 있지 않고, 6일 창조보다 선재하는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여 피조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음을 확인하였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선재하는 물과 물이 뒤엉킨 ‘혼돈’으로부터 궁창과 바다와 마른 땅을 분리하신 후에 그곳을 온갖 피조물로 채우신다. 하나님은 직접 인간(창 1:26)과 일부 피조물(창 1:21, 25)들을 창조하시지만, 대다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3인칭 명령으로 바다와 땅을 매개로 하여 창조된다(창 1:20, 24). 이처럼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의 창조는 기존에 있던 ‘혼돈’의 분리와 매개를 통해 이뤄진다.

한편 욥기 38:8-11은 바다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율례(פִּנּוּ)로 바다가 머물 경계를 설정하고, 구름과 어둠으로 바다를 제압하는 것을 보여준다. 어둠이 물을 포박하는 것은 창세기 1:2의 두 번째 상황절과 유사하다. 또한 ‘신생아 바다’에게 경계를 세우기 앞서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때(4절), 이 본문 역시 ‘혼돈’으로부터 “마른 땅”을 분리하신 장면(창 1:9-10)과 상당 부분 겹친다.

시편 74편도 태초의 창조 정황을 다룬다. 12절의 “예로부터”(מִקִּדְמוֹת)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태초를 상기시키며, 곧이어 13절에서 바다를 나누고, 용의 머리를 깨뜨리는 장면은 바다와 물을 분리하는 태초의 창조 장면을 연상시킨다. 16절에서 하나님이 낮과 밤을 나누시고,

17절에서 땅과 바다의 경계를 세우고, 계절을 만드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시편 74편도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와 궤(軌)를 함께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태초의 창조시 ‘혼돈’을 완전히 멸절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윤희하셨다. 그 이유는 창조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의 사역이지만, 이 세계의 유지와 보존은 모든 피조물, 특히 인간의 순종을 통해 이뤄나가길 원하셨기 때문이다. 특히 인간은 생육 번성의 의무에 더해, 공의와 정의로 땅을 정복하고 세계를 통치할 사명을 부여받았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땅을 정복하고 세계를 통치하는 원리는 정의와 공평이다(사 5:16). 따라서 ‘혼돈’의 세상 잔존은 피조물의 생존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피조물의 순종을 시험하는 수단이 된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제대로 지켜지면, ‘혼돈’은 하나님이 태초에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회권. 『성서주석 이사야 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_____. 『청년설교 4』. 서울: 복있는 사람, 2019.
- 김진희. “자연/창조에 있어서의 혼돈과 질서: 신학, 과학, 철학을 통한 창조의 이해”, 『신학사상』 120 (2003), 208-229
- 바르트, 칼. 『교회 교의학 III/3』 (윤응진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6), 486-496. 원저 Barth, Karl. *Church Dogmatics*, Vol. 3.3, Sections 48-49: The Doctrine of Creation, Study Edition 17, G. W. Bromiley/T. F. Torrance (ed.) (New York, NY: T&T Clark, 2010).
- 월키, 브루스 외. 『창세기 주석』. 김경열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원저 Waltke, Bruce K., *Genesis: A Commentary*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1).
- 윤형.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대한 재고찰: 창세기 1장 1절-2장 4절을 중심으로”,

www.kci.go.kr

- 「구약논단」 19/4 (2013), 117-143.
- 차준희. “구약에 나타난 창조의 영”, 「구약논단」 21/1 (2015), 185-211.
- 클라인스, 데이빗 J. A. 『욥기』. 한영성 옮김.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14. 원제 Clines, David J. A.,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17: Job 1-20*. Nashville, TN: Thomas Nelson Inc., 1989.
- 키드너, D. 『시편 주석 하권』. (김경태 옮김), 서울: 다산글방, 2020. 원제 Kidner, D., *Psalms 73-150: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No. 16*.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y Series. Downers Grove, IL: IVP, 2014.
- 테이트, 마빈 E. 『시편 중』. (손석태 옮김),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09. 원제 Tate, Marvin E., *Word Biblical Commentary: Psalms 51-100*. Nashville, TN: Zondervan, 2018.
- 판넨베르크, 볼프하르트. 『조직신학 II』. (신준호/안희철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원제 Panenberg, Wolfhard, *Systematic Theology: Vol. 2*.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2013.
- 하경택. “욥 발언의 창조모티브 고찰”, 「구약논단」 18 (2005), 105-127.
-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가톨릭 교회 교리서』. 서울: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2008.
- Allen, James P. *Genesis in Egypt: The Philosophy of Ancient Egyptian Creation Accounts*. New Haven, CN: Yale University Press, 1988.
- Anderson, Bernhard W. *Creation versus Chaos: the reinterpretation of mythical symbolism in the Bible*. Eugene, OR: Wipf and Stock, 2005.
- _____. *Creation in the Old Testament*. Philadelphia, PA: Fortress Press, 1984.
- Coote, Robert B. and Ord, D. R. *In the Beginning*.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1991.
- Eichrodt, Walter, trans. J. A. Baker.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vol. 2 Philadelphia, PA: Westminster, 1961.
- Fretheim, Terrence. “The Book of Genesis”, in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1 Nashville, TN: Abingdon, 1994.
- Gottlieb, Fred. “The Creation Theme in Genesis 1, Psalm 104 and Job 38-42”, *Jewish Bible Quarterly* 44/1(2016), 29-36.
- Gunkel, Hermann. William Whitney Jr.(trans.) *Creation and Chaos in the Primeval Era and the Eschaton: A Religio-Historical Study of Genesis 1 and Revelation 12*. Grand Rapids, MI, and Cambridge, MA: Eerdmans, 2006.
- Habel, Norman C. *The Book of Job: A Commentary*. Philadelphia, PA: Westminster

- John Knox Press, 1985.
- Hossfeld, Frank-Lothar. *Hermeneia Psalms 2*.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05.
- Kraus, Hans-Joachim. *Psalms 1-59 A Commentary*. trans. by Hilton C. Oswald. Minneapolis, MN: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8.
- Levenson, Jon D. *Creation and the Persistence of Evil: The Jewish Drama of Divine Omnipotenc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 May, Gerhard. *Creatio ex Nihilo: The Doctrine of 'Creation out of Nothing' in Early Christian Thought*, trans. A. S. Worrall. New York: T&T Clark, 2004.
- Neusner, Jacob. *Genesis Rabbah: The Judaic Commentary to the Book of Genesis A New American Translation*. 3 vols: Brown Judaic Studies 104-106. Atlanta, GA: Scholars Press, 1985.
- Pope, Marvin H. *Job: Introduction, Translation and Notes*, Anchor Yale Bible 15.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8.
- Speiser, E. A. *Genesi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2008.
- Schüngel-Straumann, Helen. "Ruah (Geist-, Lebenskraft) im Alten Testament", Maria Kassel (ed.), *Feministische Theologie: Perspektiven zur Orientierung*. Stuttgart: Kreuz Verlag, 1988. 59-73.
- Tanner, Beth, et al. *The Book of Psalms*.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4.
- von Rad, Gerhard. *Genesis, A Commentary*. trans. John H. Marks. Philadelphia, PA: The Westminster Press, 1972.
- Waltke, Bruce. *An Old Testament Theology*.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7.
- Walton, John H. *Genesis, NIVAC*.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1.
- _____. *Genesis 1 as Ancient Cosmology*.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11.
- Westermann, Claus. *Genesis 1-11: A Commentary*. Minneapolis, MN: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4.
- Young, Edward J. *Studies in Genesis One*. Philadelphia, PA: Presbyterian and Reformed, 1964.

검색어

혼돈, 無로부터의 창조, 분리, 경계 설정, 창조 전투

[ABSTRACT]

A Study of the Old Testament's Testimonies to Creation: 'Chaos-Overcoming Creation'

Yun-Jung Kim
Soongsi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plores three major biblical texts dealing with God's creation in the Old Testament: Gen 1, Job 38, and Ps 74. They demonstrate three kinds of means that God utilized to create the whole universe: fiat in 3rd person (jussives, Gen 1), orders given to primordial waters in 2nd person (imperatives, Job 38), and God's *Chaoskampf* against abysmal monsters such as Leviathan and Rehab (Ps 74). Based on the analyses of these texts, this study argues that they testify "God's creation overcoming chaos" rather than *creatio ex nihilo*.

Most of the Old Testament's testimonies to God's creation, taken together, witness to God's chaos-neutralizing creation. Even some texts have been said to show God's *fiat creatio*. Also several texts are seen to depict God's creation out of the chaotic circumstances with focus on two subcategories: God's creation of the world out of the chaotic circumstances through God's command for the primordial waters (Ps 29:3-10; Job 38:8-11; Ps 104:5-9) and God's creation of the world through God's *chaoskampf* with the abysmal monsters (Ps 74:12-17; Ps 89:7-13; Isa 51:9-16). As such, God created the world and its creatures out of chaos, the primordial realm that intermingles the abysmal waters with formless and uninhabited land. Chaos in the Old Testaments

www.kci.go.kr

indicates (1) darkness and waters flooding over the land (Gen 1), (2) a newly formed sea threatening God's creation with its proud waves (Job 38), and (3) sea monsters signifying strong empires such as Assyria and Babylonia devouring smaller countries (Ps 74).

Several accounts of creation in the Old Testament analyzed in this study show that God's creation is not a singly completed work all by Godself. One of the reasons behind this unfinished creation is that God wanted creatures to take part in the co-work with the Creator. The ongoing creation by God should be preserved and continued through the participation and obedience of God's creatures, especially of humankind. God did not eliminate the chaotic waters (chaos) once and for all; instead held them from the realm of life. Here one can get a glimpse into the aim of God's creation of humanity and the roles of chaos in creation; it functions as a mediator that invites humanity to obey God's commands in order to take part in God's creating works.

key words

chaos, *creatio ex nihilo*, seperation, boundary setting, *chaoskampf*

투고일 : 2022년 10월 04일

심사일 : 2022년 11월 19일

게재 확정일 : 2022년 11월 28일

www.kci.go.kr